

『전고려조선사(全高麗朝鮮詞)』 교감에 관한 단상

주덕자(양주대학)

요약

《전고려조선사》는 문자, 표점, 조패(調牌) 등의 감정 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할 점이 존재하며, 이는 동아시아 속문학 전파 교류 방면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전고려조선사》, 교감, 율보(律譜), 오식(誤植)

유기수(柳己洙) 선생이 집찬한 《전고려조선사》(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19년판)는 "현재까지 가장 완비된 고려조선사 총집"이다(주혜국 《전고려조선사 서》). 이 책은 집일(輯佚) 방면에서 공헌이 매우 크지만, 교감 방면에서는 상토할 점이 적지 않다. 고려조선사의 교감 문제에 관해 도연(陶然)은 《고려조선사 교감 거우(舉隅)》(《유학학간》 2023년 제1집)라는 글을 써서 필로남루하여 산림을 열었다. 본문은 전문적으로 《전고려조선사》의 교감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며, 도문이 이미 다룬 문제와 예증은 본문에서 가능한 한 피한다.

1. 오인(誤認)

오인은 고적 정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극력 피해야 할 기본 문제인데, 《전고려조선사》는 바로 이 방면에서 적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2쪽, 김극기(金克己) 《망강남》: "高不極, 一握去青天。松寺曉鍾傳絕鶴, 柳村寒杵隔孤煙。鳥道上釣連。" "조련(釣連)"은 사(辭)를 이루지 못하니, "구련(鉤連)"이어야 하며, 형이 비슷해 오류가 생긴 것이다. 규장각 가정각본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를 검토하면, 이 사는 김극기가 나주 북쪽의 금성산을 읊은 것으로 정작 "구련"이다.

120쪽, 김시습(金時習) 《석주만·한송사》: "十里寒聲, 瀟灑高低, 吹我耳側, 疑聞帝居紅雲, 奏彼鈞天廣樂。生平豪氣, 如今添却遨遊, 滄波萬頃何遼闊。都是一胸襟, 盡教伊吞吐。舒縮。滄尊斲石, 團圓都是, 舊時蹤跡。萬古相傳, 一任風磨苔剝。流年如許, 跳丸歲月蹉跎, 前人視我今猶昔。慷慨發長歌, 滿沙汀飛鴨。" 이사를 반복해서 읊어보면 사묘와 관련된 한 마디 말도 없다. 김시습 《매월당시집》 권13(《신라고려조선한시집성》 제1집 제8책 영인본, 234쪽)을 검토하니, 원래 저본 제목이 "한송정(寒松亭)"이었다. 집자가 "정"과 "사" 두 자가 형이 비슷해 오류를 일으켜 독자를 적지 않게 오도했다.

[이하 다수의 오인 사례들이 계속 나열됨]

이상 제 예들은 모두 형이 비슷해 오식한 것이다.

213쪽, 황응규 《무산일단운·철수청람》: "非煙非舞靄人望, 回首便消亡。" "비연비무(非煙非舞)"를 "비연비무(非煙非霧)"로 오식했다.

560쪽, 이양오 《남향자·만족숙선》: "十月拜高牀, 一疾蟬絲兩鬢霜。" "전면(纏綿)"을 "선면(蟬絲)"으로 오식했다.

이는 음이 비슷해 오식한 것에 속한다.

2. 저본이 곧 오식인데, 집록자가 그대로 따라 그려 정정하지 않음

고적 정리자가 저본에 충실하여 경솔하게 마음대로 고치지 않는 것은 고정 일종의 신중한 태도다. 그러나 저본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집찬자는 자연히 규정해야 하며, 원본을 존중한다고 부연 당색하여 정리자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더 나은 완선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묵수한다면 정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34쪽, 민사평 《조중조·봉화익재》: "春回谷口, 煙沈釣瀨, 水滿春機。" 35쪽, 민사평 《조중조》: "眼看紅雪灑窗扉, 閑賦阮郎歸。遠近雲蒸霞熨, 武陵氣像依稀。" 민사평 《급암

선생시집》권4를 검토하면 《조중조》 조사 3꺾이 실려 있는데, 이 2꺾이 바로 제1, 2수이며, 저본이 확실히 "춘기(春機)"와 "하운(霞熨)"으로 각되어 있다(《신라고려조선한시집성》 제1집 제1책 영인본, 525쪽). 그러나 세심히 살펴보면 전례 3구는 정족대(鼎足對)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수만춘기" 구는 搭配가 부당하니, "기"는 응당 "기(几)"가 되어야 구의가 통하고, 상구 "연침조뢰"의 "뢰"와 대장을 구성한다. 후례 중 "하운"은 사를 이루지 못하니, 응당 "하울(霞蔚)"이 되어야 한다. 둘 다 형이 비슷해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하 다수의 저본 오류 사례 계속]

3. 전통 전고를 모르고 오류를 일으킴

고적 정리자는 마땅히 고전에 익숙해야 하며, 정리 대상이 사용한 습견 고전에 대해 비교적 특별한 예감을 가져야 필요한 교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여전히 그대로 두어 한 번 틀리고 다시 틀리게 된다. 예를 들어:

152쪽, 신광한 《억진아·차운》: "猴山春晚音塵絕。玉笙聲斷淚如血。" 이 사는 신광한 《기재별집》 권7에서 기록했는데, 《신라고려조선한시집성》 제1집 제12책 영인본 408쪽을 검토하면 저본이 확실히 이러하다. 《열선전》(전 유향 저) 권상 《왕자교》를 고찰하면: "왕자교는 주 영왕 태자 진이다. 생황을 불기를 좋아하여 봉명을 만들었다. 이 락 사이에서 노닐다가 도사 부구공이 승산으로 접인했다. 십여 년 후 산상에 와서 환량에게 고하길: '우리 집에 알려 7월 7일 구씨산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라.' 과연 백학을 타고 산 정상에 머물렀는데, 바라보아도 도달할 수 없어 손을 들어 시인들에게 사례하고 떠났다." 이로부터 구산 취생이 마침내 진세 밖에서 소요하는 하나의 속전이 되었고, 신광한 사 2구가 바로 이 전을 융합 화용한 것이다. 집자가 이 전을 모르고 구본을 묵수하여 여전히 "구산(綏山)"을 "후산(猴山)"으로 오인하여 《전고려조선사》가 교감 방면에서 진보가 제한적이게 했다.

[이하 전고 관련 오류 사례들]

4. 사울을 모르고 오류를 일으킴

사집을 정리할 때 사라는 운문 체재의 "조유정구, 구유정자, 자유정성"의 특징에 마땅히 익숙해야 한다. 전서를 통관하면 집찬자가 "조유정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자유정성"에 대한 민감도는 화후가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

47쪽, 김구용 《화당춘·대인》 상반결: "綠楊堤畔杏花香。馬頭旌旆盡^ㄹ, 闌街珠翠更奔忙。爭睹檀郎。" 《척약재선생학음집》 권하(《신라고려조선한시집성》 제1집 제3책 영인본)를 검토하면 "마두" 구에 원래 한 자가 빠졌는데, 집자가 율에 따라 보족한 것은 표창할 만하다. 그러나 집자는 이 구가 율에 따라 운구여야 하므로 구호를 표해야 하는 것을 간과했다. 지금 두호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다. 송인이 지은 것을 시관하면: "落紅鋪徑水平池。弄晴小雨霏霏。杏園憔悴杜鵑啼。無奈春歸。"(진관 《화당춘》) "西真仙子宴瑤池。素堂瓊豔冰肌。瑞籠香霧撲銖衣。鳳翥鸞飛。"(조사협 《화당춘·매》) "空籠簾影隔垂楊。夢回芳草池塘。杏花枝上蝶雙雙。春晝初長。"(조정 《화당춘·춘일》) 무불여시이다. 순급, 만약 이 구가 운구여야 함을 명료한다면, 저본이 빠진 자는 실제로 역시 첨보하기 어렵지 않다. 구의를 음미하고 선택한 운부를 살펴보면 빠진 자는 분명히 "양(揚)"이어야 한다.

[이하 사울 관련 오류 사례들]

5. 사울보를 홀시하거나 문자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표점 오식을 일으킴

사울보에 따라 구를 끊지 않아 구의가 명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고정 조소에 속한다. 그러나 율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구의를 할렬하게 하는 것도 역시 온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532쪽, 조의양 《억진아·설》: "垂碧落。安期羽化蓬萊騎鶴。" 후일운은 율에 따라 두 구로 분석해야 한다: "安期羽化, 蓬萊騎鶴。"

[이하 표점 관련 오류 사례들]

6. 부분 공결자는 보충할 수 있지만 보충하지 않음

울보와 대조하면 저본에 결자가 있다. 정리자가 안정을 추구하여 ㄹ로 표시하는 것은 후비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고전 문화나 울보 정책에 따라 적당히 보충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교감학 제중 응유의 의에 속한다. 예를 들어:

129쪽, 조위 《수룡음·추일서회》: "更何時任逐, 雞豚社ㄹ, 醉鄰家酒."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이는 육유 《유산서춘》을 화용한 것이다: "莫笑農家臘酒渾, 豐年留客足雞豚。山重水復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簫鼓追隨春社近, 衣冠簡樸古風存。從今若許閑乘月, 拄杖無時夜叩門." 고로 "사" 자 후에 "희(戲)" 자를 보충할 수 있다. 춘사든 추사든 모두 사회 연출이 있다.

715쪽, 최우순 《망해조·조굴원》: "也應上碧升仙, 遙拜玉皇ㄹ." 전사 용운 "시, 비, 위, 기, 지, 치, 의" 등을 완미하면 지미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결자는 응당 "지(墀)"여야 한다.

7. 번간 자체를 혼동하여 오류를 일으킴

205쪽, 박승임 《무산일단운·북산행우》: "涼生幾案紙窗開, 山腹雨聲來." "기안(幾案)"은 사를 이루지 못하니, 당작 "기안(几案)"으로 기와 안을 분지한다. 기는 소탁으로 좌측에 설치하여 빙의하거나 물품을 놓기 편하게 한다. 안은 다리가 면판 내리로 축진한 장탁이다. 박승임 《소고선생문속집》 권1 미처를 검토하면 이 사의 이 구는 정작 "양생기안(涼生几案)"이다(《신라고려조선한시집성》 제1집 제18책 영인본, 142쪽). 집자가 "기안" "기석"의 "기"가 본자가 이려함을 유의하지 못하고 잘못 "기개"의 "기"의 간화자와 혼동했다.

453쪽, 김하구 《무산일단운》 기8 《송대효운》: "霞標萬丈洗煙霏。臺嶺夢依依." 고평한 물건을 "대"라 하는데, 이곳을 "태(台)"로 쓰면 기의가 자생하기 쉽다. 하물며 표제에 이미 "송대(松臺)"라 했는데, 정문에서는 또 "태(台)"라 하여 스스로 갈등을 일으킨다.

한 부 총집이나 별집을 정리할 때 집일과 교감 양자는 편폐될 수 없다. 양자를 겸선하기는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본문이 《전고려조선사》에 대해 지하한 것은 그 근면한

공헌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고, 단지 동아시아 속문학이 전파 교류 방면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소시하여, 이 책이 정익구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후 수정에 약간의 참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문학 전파 호감에 약간의 제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말한 바가 반드시 다 맞는 것은 아니니 방가의 비평 지정을 기대한다.